

---

# I. 서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은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의 경우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이 본격적인 은퇴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은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 본격적인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앞서 우리나라 중·고령가계의 전반적인 소비 및 자산보유에 있어 은퇴 전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은퇴가구가 직면하는 장수, 사망 리스크 등 고령화 관련 리스크에 따라 이들 가구의 소비, 자산구성 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체가구 중 은퇴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 가구의 소비행태 및 자산보유 행태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
  -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작으로 인해 은퇴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은퇴가구의 소비가 사회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윤재호·김현정 2010).
  - 현재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한 중장년층은 기존 세대와 달리 부모부

양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고, 근무연령에 대한 제약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은퇴가 많은 반면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여 은퇴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박시내·심규호 2010; 안중범·전승훈 2004).

- 따라서 연금제도와 관련 복지제도 등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은퇴가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은퇴가구의 소비지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부채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이 필요함.
  - 은퇴 후 소비생활 및 자산배분·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은퇴한 중고령층 가계를 위한 연금 및 관련 정책입안과 보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층의 은퇴 전후 소비변화 가능성은 물론 자산보유 행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은퇴시장 형성 나아가 고령화에 따른 은퇴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화의 영향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후 동일 가계의 경제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가계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유량(flow)과 저장(stock) 측면에서 ① 중·고령자 가구의 은퇴 전후 소비 행태, ② 자산보유 행태를 살펴보고, ③ 은퇴자와 비은퇴자 간 자산분배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은퇴준비 내지 은퇴 가구의 금융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2. 연구범위 및 방법

### 가. 연구의 범위

- 은퇴를 전후한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변화 그리고 이들 소비를 뒷받침하는 자산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불안감이 은퇴가구의 경제행태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함.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의 불안감 확산과 그 배경요인을 분석함.
    - 빠른 고령화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 도래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부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을 점검함.
  - 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소비 및 자산구성 등은 어떠한 형태를 갖는지를 중·고령자 가계를 설문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을 중심으로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살펴보고, 은퇴 전후 가계의 주요 경제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은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연구의 주안점은 중·고령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퇴 전후로 동일가구의 은퇴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소비 및 자산관련 은퇴 전후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며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가계의 불안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그 배경요인은 무엇이 제기되고 있는가?
  - 둘째, 은퇴 전후 가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비변화가 있었는가? 은퇴로 인해 가구의 소비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셋째, 은퇴로 인해 가구는 소득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즉, 은퇴가 유동성제약을 보다 강화시키는가?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 충격에 보다 취약한가? 은퇴빈곤층은 확산될 것인가?

- 넷째, 소득 및 자산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가구의 확산이 자산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구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상대적인 분배는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 다섯째, 은퇴 전후 가계의 자산 수준 내지 자산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 여섯째, 건강에 대한 우려의 확산은 중·고령자 가계의 자산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나. 연구의 방법

■ 다음과 같은 중·고령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경제행태 중 소비와 자산관련 행태를 기술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함.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조사대상(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임.
  -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 2007년에 2차, 2009년에 3차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연도 자료의 이용이 가능함.
  - 동 조사도 KLoSA와 유사하게 가구원의 인적사항, 주거현황, 개인연금 및 건강보험, 자산 및 부채 현황 그리고 은퇴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임.
  - 2006년에 패널 구축 및 제1차 조사 수행, 2008년에 제2차 조사가 실시되어 이용이 가능함.
  - 해외 고령자 패널조사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KLoSA는 45세까지 낮추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40대 중반부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향이 심화됨을 반영하기 위함.

- 고용, 소득, 자산, 건강 등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소비관련 정보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소비행태 분석은 KReI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산구성 행태 분석에 있어서는 KReIS와 함께 자산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KLoSA를 이용함.
  - KLoSA의 경우 금융자산 관련 정보에 있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위험 관련 가계의 자산선택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KReIS 전체 관측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와 KReIS 패널가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적 자료의 경우 전체 중·고령자 전체 가구의 특징을 정리할 경우 사용되고 후자의 경우 은퇴 전후로 한 행태 변화를 실증분석할 경우 활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전반적인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행태를 기술하는 경우엔 KReIS 전체 자료를 종단면으로 활용하여 정리하고, 은퇴가구의 경제행태를 실증분석하는 경우 연구자가 구축한 KReIS 패널자료를 활용함.